

200자 안내

서울 동키호테

박계점 지음

악당을 무찌르고 착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맡겠노라 출사표를 내던진 주인공 계수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사회악과 범죄의 현장을 누비며 악당들을 응징하는 통쾌한 이야기. 1·2·3권에 이어 네번째로 나온 이번 소설에는 '심리병법'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인간의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소설적 깊이와 흥미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장원 / A5신 / 302면 / 3500원

보석상자

I.A. 크루이로프 지음 / 이향희 옮김

예리하고 대담한 풍자로 주목을 모았던 18세기 러시아의 민족주의 작가인 크루이로프의 우화 98편을 모았다. 수뢰, 공금횡령, 상류계급의 위선, 그리고 모순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상인의 생활과 귀족계급의 공허한 생활, 퇴폐적인 습속 등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작품마다 간단한 해제를 함께 수록, 이해를 돕고 있다.

서연 / A5신 / 246면 / 4000원

이브가 깨어날 때

케이트 쇼팽 지음 / 이소영 옮김

미국판 「보바리부인」으로 불리는 미국작가 케이트 쇼팽의 장편소설. 19세기 보수적 전통 사회 속에서 에드나 폰텔리에라는 젊은 부인이 청년 로버트를 통해서 성적·심리적으로 자의식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탐색한 내용. "병적이다" "비도덕적이다"는 온갖 비난 속에서 판금당해 반세기이상 방치되어 있다 시적 통일성, 산문적인 유려한 문체를 특징으로 종족간의 문제와 환상에서 깨어난 인간들의 고통의 문제를 탁월하게 다룬 작품으로 재평가되었던 화제작이다.

글 / A5신 / 246면 / 3800원

안녕하세요 성령님

베니 힌 지음 / 안준호 옮김

이스라엘 출신의 한 청년이 미국으로 이민가

겪은 놀랄만한 신앙체험을 기록한 내용으로 힌 목사 자신의 고백적인 이야기이다.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 부음의 근원과 목적'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 등 5개의 장에서 그를 사목의 세계로 이끈 하나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엿보게 한다. 기독교서적 시리즈로 새롭게 기획한 '달란트 총서' 첫책권.

열린책들 / A5신 / 264면 / 3800원

현대이데올로기

안소니 크레스피그니 외 엮음 / 이두호 외 옮김

현대사회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정치이데올로기를 설명하고 읽는 책. '보수주의'(M.오우크셋) '자유주의'(F.A. 하이에크) '사회주의'(G.D. 코울) '민주주의'(R. 월헤임) '전체주의'(R. 오르) '민족주의'(H. 콘) 등 주요 이데올로기들에 대해 서구의 석학들이 각각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비교·분석, 독자들에게 이념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인간사랑 / A5신 / 198면 / 4000원

루스벨트

오오모리 미노루 지음 / 김수명 옮김

링컨 이래 불세출의 대통령, '휠체어의 지도자'로 일컬어진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일생과 업적을 담은 전기. 자본주의의 방기로 붕괴위기에 직면한 미국을 뉴딜정책의 도전으로 견져내고 진주만 기습 등 세계대전의 위기를 또 다시 승리로 이끌어 미국의 정치·경제의 구조적 질서를 회복시킨 루스벨트와 주변인물을 사실에 근거해 서술하고 있다.

정음문화사 / A5신 / 322면 / 3800원

소리내고 먹으면 더 맛있다

송현 지음

한글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글을 발표해왔던 시인이자 칼럼니스트인 저자가 '성'에 관한 생각들을 모은 이색 칼럼집.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성관·결혼관·가정관, 이혼과 도덕성의 타락, 정책 등에 대한 비판과 왜곡굴절된 우리나라 성문화 풍토와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고답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담았다. 특유의 독설과 재치있는 문장이 돋보인다.

한교원 / A5신 / 238면 / 3800원

욕심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남지심 지음

「연꽃을 피운 돌」 「우담바라」 등 불교적 정서를 주제로 한 작품을 발표해왔던 작가의 첫 에세이집. 일상생활에서 느낀 생각의 편린들과 만남과 인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의 기쁨, 존재

의 가치와 인간 삶에 대한 사고, 구도자로서의 겸손한 자세로 엮은 불교에 대한 단상 등 불교와의 인연을 담은 글들이 작가의 섬세한 감성과 따뜻한 인간애로 그려져 있다.

고려원 / A5신 / 290면 / 4300원

러시아혁명, 구성주의,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운동연구회 지음

한국건축운동의 보편성을 러시아 구성주의 건축의 의의와 전개과정을 통해 재검토하고, 현재 한국에서의 포스트모던 건축에 대한 이론과 실제의 비판을 통해 건축현실을 재검토한 건축운동연구회의 연구모임 결과를 한데 묶은 책이다. 건축만큼 사회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예술분야도 드문 만큼 러시아 구성주의와 혁명 당시의 관계를 살핀 논문 등은 시사하는 바 크다.

두영 / A5신 / 240면 / 7000원

'92 인쇄골

인쇄출판연구실 엮음

부산지역 인쇄인들이 모여 만든 연구실에서 매년 연감형식으로 펴내는 작업일지. 현장화보와 업체주소록, 그리고 업체들의 약도가 덧붙여진 이 일지에는 인쇄부수와 단가·제지공정·스크린 효과·접지와 제본·제판 등의 인쇄상식이 모두 18항목으로 나뉘어 실렸다. 또 디자인·인쇄·제본과정에서 쓰이는 용어를 풀이한 사전도 부록으로 첨부했다.

새암 / B5변형 / 190면 / 비매품

달빛 랩소디

백선우 지음

「육망의 그늘」 「위험한 관계」 등의 추리소설을 펴낸 작가가 살인사건을 소재로 쓴 신작 소설. 조선시대 어느 공주의 무덤이 있는 공주릉에서 한 남자의 변사체가 발견되고 수사에 나선 성운경 형사는 수사망을 좁혀가지만, 다시 살인이 발생되고 범인은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나타난다. 사건전개의 긴박감과 짜릿한 반전으로 추리물 읽기의 즐거움을 준다.

한길사 / A5신 / 260면 / 4000원

동방박사 이야기

M. 투르니에 지음 / 김혜숙 옮김

성서 속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전통적인 3왕 가스파르, 발타자, 멜시오르의 이야기와 네번째 동방박사인 인도의 따오왕자에 대한 전설이 담겨있는 어른들과 함께 읽는 동화. 어느날 문득 그동안 자신들이 추구해오던 사랑과 예술, 모든 인간적인 것들에 염증을 느끼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여행길에 오른 왕들이 혜성의 빛을 따라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렸다.

성바오로출판사 / A5 / 144면 / 2000원

아홉살 인생

위기철 지음

풍트, 소설, 철학동화 등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 우리시대의 이야기꾼으로 불리는 작가의 연작형식의 성장소설. 아홉살 무렵 산꼭대기의 판자집으로 이사가 만난 사람들, 순진한 거짓말쟁이 신기종,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는 골방 철학자, 사랑스런 허풍쟁이 장우림 등 달동네 사람들의 스산한 삶의 모습이 풍화처럼 묘사돼 있다.

창년사 / A5신 / 224면 / 4000원

파도는 쉬지 않는다

이재인 지음

6·25전쟁중에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갖가지 불이익과 감시의 눈길을 감수해야 했으며, 情夫를 따라간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을 곱씹어야 했던 아픔을 지닌 주인공 한서화를 중심으로 우리시대 젊은이들의 꿈과 좌절, 사랑과 야망의 이야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함정이 많은 세상에 방향등을 세우는 일이 글쓰는 이의 의무"라고 말하는 작가의 세번째 장편.

세계일보출판국 / A5신 / 302면 / 4000원

너와 나

임선희 지음

「여성동아」에 오랫동안 「여성의 손길」을 연재한 바 있는 수필가이자 방송인이기도 한 저자가 젊은이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주는 에세이를 모았다. 누군가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이 자리매김될 수 있고 '너와 나'라는 개체가 '우리세계'를 누리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 5장으로 구성된 글들을 통해 전해준다.

소학사 / A5신 / 290면 / 4000원

통일산책

변경섭 지음

현재 국토통일원 해외통일홍보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는 저자가 통일문제를 다루는 공식 생활과,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홍보방송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논의와 노력들을 분석한 글을 모은 책. "통일의 희망은 이념이나 체제에 대한 논쟁보다도 삶의 선택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기본 입장.

사람과사람 / A5신 / 298면 / 3800원

내 가슴속에 부서지는 슬픔

김희명 지음

흔히 문제야로 취급당하기 쉬운 학원가의 재수생들을 취재해 그들이 재수기간에 겪게 되는 심리적 갈등과 방향을 조명한 소설. 젊음을 잊고 대학입시라는 중압감에 시달리는 두명의

여자재수생들이 가정과 학원에서 맞부딪치는 문제를 다룬 이 소설은 우리 교육현실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고려원 / A5신 / 268면 / 4000원

사랑병동

안장환 지음

63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 등단한 뒤 「배반의 그늘」 「당추동 사람들」의 작품을 발표했던 작가의 신작장편소설. 도시민의 한 전형이라 할 남궁씨네 가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사랑의 애환이 담긴 이 소설에서 작가는 극도의 이기심과 인스턴트문화에 물든 젊은 세대들에게 사랑으로 뭉친 진정한 모습 살아가 무엇인가를 전해준다.

한라 / A5신 / 304면 / 4000원

오늘, 그리고 내일

신상우 지음

기자출신 5선의원인 저자가 6공화국에 거는 기대와 전망, 그리고 실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담았다. 그동안 각종 매체를 통해 발표했던 정치칼럼과 정치현실에 대해 쓴 단상들을 한데 모았는데, 국회에서 행한 대정부질의 내용을 부록으로 실었다. 야당의원에서 집권당의 당무의원으로 입장이 바뀌면서도 줄곧 추구해온 정치적 신념을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역설한다.

햇빛 / A5신 / 316면 / 4500원

디스커버리

스티브 새건 지음 / 정태원 옮김

신의 마지막 계명을 찾기 위해 황량한 모래사막에서 고대 유물 발굴작업에 뛰어들어 미모의 고고학자와 수집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음모와 연쇄 살인사건 등을 통해 인간의 탐욕스런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10.26사건을 소재로 한 추리소설 「파문」으로 국내에서 잘 알려진 작가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글사랑 / A5신 / 498면 / 5600원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사이드 필드 지음 / 유지나 옮김

시나리오를 쓰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좋은 시나리오를 모델로 영화를 보고 읽어내는 구체적인 방법과 시나리오를 쓰는 데 긴요한 패러다임 구성단계를 설명했다. 지난 71년 출판된 이래 시나리오 작법 교재로 널리 쓰이고 있는 고전으로, 영화관계자들이나 일반 영화팬에게도 유용하게 읽힐 것으로 보인다.

민음사 / A5신 / 262면 / 6000원

세계 종교사 입문

한국종교연구회 지음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로 나누어 각각의 종교전통의 역사적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국내의 소장학자

들이 대거 집필에 참여, 기존의 서구중심적 시각을 탈피하려 한 점이 특징. 또한 학술적 가치와 함께 쉽게 씌어진 초보자를 위한 입문서의 성격도 지닌다.

청년사 / A5신 / 702면 / 12000원

물 위의 하룻밤

켄 폴리트 지음 / 박길부 옮김

「바늘구멍」 등을 통해 서스펜스의 거장으로 불리는 작가의 최신작. 실재했던 초호화 비행정 '팬 암 클리퍼'의 대서양 횡단비행 30시간 동안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야기의 중심을 이룬다. 2차대전 발발로 조국을 떠나 도망가는 한 파시스트와 그의 가족들, 탈옥수와 경찰, 매력적인 도둑 등 개성있는 승객들과 항공기사가 펼치는 이야기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다.

예하 / A5신 / 510면 / 5900원

위대했던 나

산드라 스코페타운 지음 / 바다저작권회사 번역팀 옮김

약물중독 등 청소년문제를 다룬 성장소설. 주인공 '제리'는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도피하기 위해 술을 마시게 되면서 점점 알콜중독에 빠지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극복해나간다는 이야기. 주인공이 기성세대를 향해 던지는 냉소적인 독설과 유머가 귀기울일 만하다.

민족과학사 / A5신 / 270면 / 4500원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박완서 외 지음

작년도 문학상 수상작가들의 대표작 모음. 이산문학상을 수상한 박완서의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외 2편을 비롯해서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한수산의 「先史의 꿈」 「未知의 새」, 한국일보문학상 수상작가인 하창수의 「더 깊어지는 江」 「兵士」 「暗黙과 辯舌」 「진술」 등이 실렸다.

道道 / A5신 / 322면 / 4700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

한 권의 책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기까지에는 참 여러 단계의 일이 필요합니다. 기획, 필자 섭외, 윤색, 교열, 조판, 교정, 편집 그리고 책의 얼굴을 꾸미는 작업인 표지 디자인에 까다롭기만 한 제작과정들. 이 모든 과정들 모두가 어느 하나도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일들 뿐입니다.



바른글방의 서른 한 명의 식구들은 이 모든 일들에 이제는 이골이 나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을 결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그러한 확인과 정성의 마음이 바른글방을 바른글방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 ▶<바른글방>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출판기획상담 • 단행본·잡지 등 기획출판 대행 • 운문·교열·교정 대행 • 본문편집
 - 단행본·아동물·참고서 등 전산조판 입·출력
- ▶<미필적 고의>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표지·본문 등의 디자인 • 출판광고 디자인 • 일러스트 • 출판제작대행
- ▶<바른글방>에는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 완전편집 가능한 KCE 편집입력기 SUPER WRITER 15대 • 300LP 1대
 - ECRM 인화지 및 필름 출력기 1대

출·판·전·문·집·단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7-9
한샘빌관 3층
전화 325-5366(대)
325-5363~5
325-6484~5
팩시 325-5362

디·자·인·전·문·집·단

